

문화

문인들이 말하는 '아버지의 초상'

“을 연말에는 그림 한 점 걸어 보세요”

“을 연말에는 거실에 그림 한 점 걸어 보세요.”

연말을 맞아 광주지역 갤러리들이 저렴하게 작품을 살 수 있는 다양한 소품전을 마련했다. 또 수익금의 일부를 이웃 돕기 성금으로 쓰기 때문에 작품을 소장하고, 나눔도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26일~12월7일까지 '2009 행복나눔-이웃사랑 기금마련 소품전'을 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63인의 소품 70여 점을 30만원~100만원대에 판매한다.

한희원 '청색의 겨울', 김해성 '숲의 친구들', 박익규 '매화초상', 김익모 '즐거움 풍경'

또 전시 기간 중에는 김상연씨의 판화시연회도 열리고, 관객이 직접 신년 연화장을 만들어볼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약 30여 점이 판매됐으며, 1천300여만원의 기금이 조성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됐다. 문의 062-360-1630.

시안갤러리는 오는 27일~2010년 1월31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빅시터 2층 매장에서 지역 작가들의 작품과 드로잉 소품 등을 판매하는 릴레이 전시 '와우 아트(WOW Art)'전을 연다.

주홍(27일~12월17일), 한희원(12월18일~2010년 1월3일), 손

의 작품과 드로잉 소품 등을 판매하는 릴레이 전시 '와우 아트(WOW Art)'전을 연다.

이 밖에 금호갤러리는 29일까지 광주MBC(대표이사 사장 운영관),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최상영)와 공동으로 '사랑의 아트 초대'전을 연다.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양계남, 차숙자, 우재길, 김익모, 정윤태씨 등 60여명의 작품 70여점을 시종가보다 20~50% 가량 저렴하게 전시·판매한다.

이들 작가들은 전시를 위해 작품을 기증했고,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급식이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쓴다. 문의 062-360-2623.

이들 작품은 전시를 위해 작품을 기증했고,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급식이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쓴다. 문의 062-360-2623.

전반이다. 또 한희원씨는 '눈 내리는 풍경' 작품과 크리스마스 카드 등을 출품하고, 손봉체씨도 다양한 소품들을 내놓는다. 문의 062-570-2334.

이 밖에 금호갤러리는 29일까지 광주MBC(대표이사 사장 운영관),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최상영)와 공동으로 '사랑의 아트 초대'전을 연다.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양계남, 차숙자, 우재길, 김익모, 정윤태씨 등 60여명의 작품 70여점을 시종가보다 20~50% 가량 저렴하게 전시·판매한다.

이들 작가들은 전시를 위해 작품을 기증했고,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급식이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쓴다. 문의 062-360-2623.

이들 작품은 전시를 위해 작품을 기증했고,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급식이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쓴다. 문의 062-360-2623.

이들 작품은 전시를 위해 작품을 기증했고,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급식이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쓴다. 문의 062-360-2623.

이들 작품은 전시를 위해 작품을 기증했고,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급식이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쓴다. 문의 062-360-2623.

이들 작품은 전시를 위해 작품을 기증했고,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급식이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쓴다. 문의 062-360-2623.

이들 작품은 전시를 위해 작품을 기증했고,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급식이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쓴다. 문의 062-360-2623.

이들 작품은 전시를 위해 작품을 기증했고,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급식이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쓴다. 문의 062-360-2623.

이들 작품은 전시를 위해 작품을 기증했고,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급식이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쓴다. 문의 062-360-2623.

이들 작품은 전시를 위해 작품을 기증했고,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급식이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쓴다. 문의 062-360-2623.

이들 작품은 전시를 위해 작품을 기증했고,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급식이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쓴다. 문의 062-360-2623.

이들 작품은 전시를 위해 작품을 기증했고,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급식이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쓴다. 문의 062-360-2623.

이들 작품은 전시를 위해 작품을 기증했고,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급식이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쓴다. 문의 062-360-2623.

이들 작품은 전시를 위해 작품을 기증했고,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급식이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쓴다. 문의 062-360-2623.

이들 작품은 전시를 위해 작품을 기증했고,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급식이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쓴다. 문의 062-360-2623.

이들 작품은 전시를 위해 작품을 기증했고,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해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급식이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쓴다. 문의 062-360-2623.



'아버지, 그리운 당신' 출간

문인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문인들과 또 문인을 아버지로 둔 이들이 쓴 아버지 이야기를 묶은 산문집 '아버지, 그리운 당신'(서정시학 펴냄)이 출간됐다.

계간 '대산문화'에 연재된 원고를 중심으로 박효환·최동호씨가 함께 엮은 이 책에서는 황동규, 조경래, 신달자, 정호승, 공지영, 김애란 등 주요 문인들이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 다양한 아버지 36명의 초상을 그리고 있다.

아버지라는 테마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주제지만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문학의 길을 걷고 있는 문인들로서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더욱 조심스러웠다.

소설가 황순원의 아들인 황동규 시인과 소설가 한승원의 딸인 소설가 한강씨는 거듭된 설득 끝에 창작에 응했다고 한다.

황 시인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나는 아버님에 관한 얘기를 가능한 한 삼갔다"며 "아버님이 타계하시고 8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하며 숨겨왔던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한씨는 작가 한승원씨를 '급체했을 때 척추 마디 하나하나를 한 시간 가까이 푹꾹



조경래 황동규 한강

놀려주셨던' 자상한 아버지라고 말한다. 소설가 조경래씨는 신식 교육을 받기 위해 중이 되었다 일본으로 건너가 말살정책 때문에 대체승이 되어 자신을 낳고, 해방 후 선암사 지주와의 갈등 때문에 절에서 나와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평생을 보낸 아버지 조경환(1906~1990)씨를 담담히 회고하고 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서 종교마저도 황국화했다. 승려들을 일본식으로 결혼시켜 대체승으로 만든 것이다. 내 아버지는 그 모퉁에 걸려 스물여덟 나이에 선암사에 절혼식을 올린 최초의 승려가 되어야 했다. ... 나는 그렇게 태어났고, 일본의 은혜에 감사하듯 '아리랑'을 썼다."

고인이 된 근대 문인들을 회고하는 자녀의 글도 실렸다.

아구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기적의 약' 먹고 회생해 대표작 '성북동 비둘기'를 써내려간 김광섭 시인이나 크고 작은 염문설로 끊임없이 아내를 함부로 했던 유치환, 치밀한 추리소설을 쓰는 작가답지 않게 엉성하고 비논리적이었던 김내성 등을 문인이 아닌 아버지의 모습으로 접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식구가 주는 애뜻함을 말하려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이 모든 삶의 국면들을 함께 대만지며 상처를 공유하며 나아갔던 순간들이 있기 때문

- 소설가 한강의 글 중



한희원 '청색의 겨울' 김해성 '숲의 친구들' 박익규 '매화초상' 김익모 '즐거움 풍경'

서양화가 김영화씨 서울서 개인전

12월1일까지 갤러리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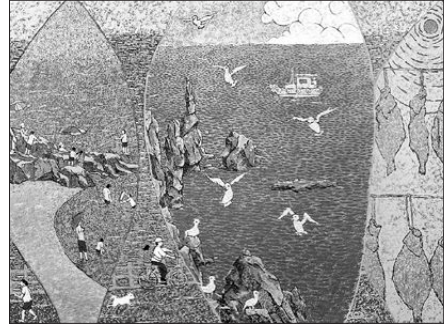
소시민 일상 아름다움 표현

서양화가 김영화씨가 오는 12월1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갤러리 LIGHT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부드러운 색채로 소시민의 일상 생활을 아름답고 은화하게 표현한 신작을 선보인다.

이들 작품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화면을 분할한 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

또 물가부름을 사용해 표면에 거친 질감을 줘 고단한 소시민의 삶도 함께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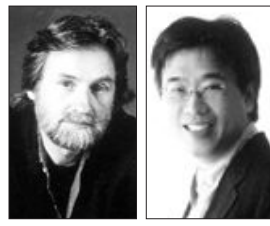
'동해여행'

조성대 미술학과출신으로 서울, 광주 등지에서 18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복우회·황토회·사다리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2-725-0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향, 독일 지휘자와 만나다

내일 문예회관, '환상교향곡' 연주



아르프 김영호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구자범)이 독일 만하임 국립 하이델베르크 대학 지휘과 주임교수인 클라우스 아르프를 객원 지휘자로 초청, 연주회를 갖는다.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이날 들려줄 레퍼토리는 베를리오즈가 파리 음악원 시절 실연 당하고 자살까지 기도했던 자신의 경험담을 모티브로 해 작곡한 '환상교향곡'이다.

또 피아니스트 김영호씨와 생상의 '피아노협주곡'을 협연한다. 줄리어드 음대 및 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뉴욕대학 등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했으며 현재 연세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나는 예술여행 - 탈춤'

내일 광주청소년문화의집

전통연희놀이연구소가 주최하는 '신나는 예술여행-탈춤, 그 새로운 경험을 위한 여행'이 27일 오후 7시 광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다.

삼촌동 새누리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모두 4개 마당으로 꾸며진다. 힘차고 웅장한 사자춤(사진), 휘발이춤에 이어 셋째 마당에서는 참가 어린이들이 탈춤을 활용해 만든 음악 창작극을 선보인다.

또 마지막 마당은 현대적 감각으로 편곡한 민요를 관객과 출연자가 함께 불러보는 어울림 마당으로 꾸며졌다.

공연에 앞서 오후 6시에는 종이 입체탈 만들기 체험마당 행사도 갖는다.

또 12월 6일에는 신안 보육원에서 공연과 탈 만들기 열 계획이다. 전통연희놀이연구소(대표 정재일)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34호 강령탈춤을 광주·전남 지역에 보급하고 다양



한 전통 연희놀이를 전파하기 위해 1999년 설립한 단체로 전통문화 관련 공연과 탈춤 감상, 탈 만들기, 소고놀이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011-9613-931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mall Business, Big Support' (작은만남 큰기쁨) featuring a grid of 48 business listings with names, addresses, and phone numbers.